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민속 한마당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07 July 2011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 Museum Auditorium
2011년 1~7월, 9~12월 매주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일요상설공연 Sunday Performance, Museum Courtyard
2011년 4~6월, 9~10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수요민속음악회 Wednesday Performance, Museum Courtyard
2011년 5~6월, 9~10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국립민속박물관 앞마당

국립민속박물관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우리민속 한마당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7월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 Museum Auditorium

제711회

가야금 선율 속으로

Into the Melody of Gayageum

07. 02.

제712회

씻김 난장

Ssitgim: A Joyful Mess

07. 09.

제713회

김선정의 춤

Dance by Kim, Seon-jeong

07. 16.

제714회

율명

Yulmyeong

07. 23.

제715회

박건희무용단의 춤, 꽃 한 송이

A Piece of Flower, Dance by Park Kun Hee Dance Group

07. 30.

* 공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re may be changes to the performance schedule.

* 토요공연은 강당 내부 수리로 8월 한 달간 일시 중단됩니다.
  9월부터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Due to the renovation of Museum Auditorium, Saturday Performances will be suspended during August.
  We will be back will better facilities and performances in September.

우리민속 한마당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07 July 2011

가야금 선율 속으로

Into the Melody of Gayage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백제가야금연주단은 지난 20년 동안 가야금연주와 제자 양성을 통해 국악발전에 이바지해 온 이수희 선생님과 그 제자들로 구성된 "가야금 오케스트라"이다. 아바의 '맘마미아'를 비롯한 러시아 음악, '서리서리'등의 창작곡을 전통음악과 함께 선보이며 새로운 음악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12현가야금뿐만 아니라 음량과 음역이 큰 25현가야금 연주를 통해 팝송, 영화음악, 러시아 음악 등 새로운 가야금의 길을 찾아 우리 소리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아리랑 변주곡, 뱃노래 등의 민요를 비롯해, 왈츠, '헝가리 무곡' 등 클래식 음악과 '맘마미아', '워털루' 등 영화음악, '서리서리', '오래된 이야기' 등의 창작곡을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로 색다르게 감상해 볼 수 있다.

The Baekje Gayageum Orchestra, which is comprised of Gayageum Master Lee, Su-hee and her students,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rough the performances of Gayageum and the training of young generation. The orchestra not only plays Korean traditional music, but also tries various kinds of music such as songs of Abba, Russian folk songs and original numbers like 'Seori Seori'. In order to globalize the sound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e orchestra has adopted reformed 25-string Gayageum which can broaden the spectrum of music and the range of sound,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12-string Gayageum.

In this performance, the performers will present familiar Korean folk songs such as Variation of Arirang and Boating Song. Also, classical numbers like Waltz and 'Hungarian Dance', film music including 'Mamma Mia!' and 'Waterloo', as well as original repertoires like 'Seori Seori' and 'An Old Story' will be played in the beautiful Gayageum sound.

공연순서 PROGRAM

1 **아리랑 변주곡** Variation of Arirang
2 **뱃노래** Boating Song
3 **서리서리** Seori Seori
4 **오래전 이야기** An Old Story
5 **달님에게 〈정읍사〉 / 노래 이수희**
To My Luna from "Jeongeupsa" / Song by Lee, Soo-hee
6 **그대에게 가고 싶은 별 하나**
A Star Hoping to be with You
7 **헝가리무곡 제 5번**
Hungarian Dance No. 5
8 **옐로우 리본**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9 **맘마미아** Mamma Mia!
10 **워털루** Waterloo

대 표 이수희 | 백제가야금연주단 대표
출 연 김성아, 이운영, 김민아, 김미정

2011. 7. 2. sat (토)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2 July 2011(Sat), Museum Auditorium

씻김 난장

Ssitgim: A Joyful Mess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 "씻김난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의 연희적인 내용과 박병천류 진도북춤의 춤사위를 선보이는 공연이다. 본 공연에서는 민속무속의 가, 무, 악과 들에서 행해지던 북춤의 연희성을 함께 보여줄 것이다. 첫 무대는 장단의 기교와 음악의 아름다움 보다는 인간의 간절한 기원을 소리로 표현한 작품인 '산자를 위한 축원'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복을 관장한다는 제석신에게 소원성취를 담은 진도씻김굿의 한 절차인 제석굿과 전라도 정읍지역의 소고놀이를 춤으로 표현한 소고춤이 이어진다.
또한 제석신에게 재물을 많이 달라고 비는 노적거리와 아쟁산조에 이어서 마지막무대는 강렬한 북가락과 유연하고 섬세한 장구가락에 맞추어 함께 어우러진 박병천류 북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Ssitgim: A Joyful Mess" will combine two different types of art; the performance of shaman ritual from Jindo Ssitgimgut, th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72, and Jindo Drum Dance in the Style of Park, Byeong-cheon. The first repertoire is 'A Blessing for the Living', which is a choreography in faithful rendering representing man's earnest pray. The following Jeseok Yuram, a part from Jindo Ssitgimgut, is a ritual praying for the God of Jeseok, who is in charge of good fortune. Then Sogo Dance, an arrangement of Sogo play from Jeongeup of Jeollado province will be on the stage.
The latter half of the performance will be consisted of Nojeokgeori (a pray for prosperity to the God of Jeseok), Ajaeng Sanjo and Jindo Drum Dance. Especially, the drum dance will combine the strong beat of Buk(drum) and delicate rhythm of Janggu(hourglass-shaped drum).

공연순서 PROGRAM

1 **산자를 위한 축원** A Blessing for the Living
2 **제석유람** Jeseok Yuram
3 **소고춤** Sogo Dance
4 **노적거리** Nojeokgeori
5 **아쟁산조** Ajaeng Sanjo
6 **박병천류 북춤** Drum Dance in Park, Byeong-cheon Style

대 표 박성훈 |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이수자
출 연 양용은(소리.춤), 서희경(춤.징), 신희영(춤.장구), 배련(아쟁), 신현석(해금), 전인근(대금)

2011. 7. 9. sat(토)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9 July 2011(Sat), Museum Auditorium

김선정의 춤

Dance by Kim, Seon-jeong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본 공연은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의 의미를 담아 추는 국가적 차원의 송축무이자, 즉흥과 신명으로 귀결되는 민속춤인 태평무로 시작하여 우리 고유의 악기인 장고를 매고 흥과 멋으로 변주되어지는 가락을 감상할 수 있는 장고춤에 이어, 즉흥적이고 여백이 있는 두 사람의 농익은 춤가락의 앙상블이 일품인 '사랑가'와 부채산조 '매화꽃 향기 따라'가 이어진다. 또한 정중동의 미가 특징인 살풀이에 이어, 역동적인 동작과 개인기로 신명의 판을 만들어 내는 소고춤이 이어지며, 춤사위가 매우 남성적이면서 아름다운 몸짓과 오묘한 가락이 조화를 이루는 진도북춤을 선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은 북, 소고의 다채로운 소리와 가락이 하나의 장단과 가락으로 어울려 멋과 흥을 자아내는 '춤으로 하나 되어'로 마무리한다.

The stage will be started with Taepyeongmu, which is a national blessing dance praying for the reign of peace. Then Janggo Dance with various rhythms of Janggo (hourglass-shaped percussion), the improvised dance ensemble 'Sarangga' and the Buchae Sanjo (folding fan dance in the Sanjo melody) 'Along with the Scent of Plum Flowers' will be performed. The next will be enthusiastic Sogochum and Jindo Drum Dance. Expecially, Jindo Drum Dance is famous for its masculine yet beautiful motion and the unique rhythm.
The last will be an original performance named 'A Harmony made of Dance', presenting the traditional grace and excitement from the various sound of instruments.

공연순서 PROGRAM

1 **태평무(강선영류)** Taepyeongmu (In the Style of Kang, Seon-young)
2 **장고춤** Janggo Dance
3 **사랑가** Sarangga
4 **부채산조 – 매화꽃 향기따라** Buchae Sanjo - Along with the Scent of Plum Flowers
5 **소고춤** Sogo Dance
6 **진도북춤** Jindo Drum Dance
7 **춤으로 하나되어** A Harmony made of Dance

대 표 김선정 | 단국대학교 예술조형대학 무용과 교수
출 연 이지혜, 장희옥, 이효민, 최리나, 장두레, 손수연, 심다솜, 김초름, 김다솜, 이예림, 박인혜, 안은비, 이은영, 박정완

2011. 7.16. sat (토)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16 July 2011(Sat), Museum Auditorium

율명
Yulmyeong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무대에서는 역동적인 두드림의 소리를 듣는다. 공연을 펼칠 그룹 타랑은 전통국악을 기반으로 타악의 새로운 면모를 모색하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의 단체로 이번 공연에서는 타악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먼저 첫 곡인 '대고합주'는 빠른 리듬과 비트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 역동적이고 힘찬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곡이다. 이어서 '리듬모리'는 휘모리 가락을 변형시켜 강한 비트와 빠른 리듬의 교차, 역동적인 몸짓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사물놀이와 천고무, 그리고 사물놀이의 백미라 할 수 있는 판굿이 이어진다. 이날 판굿 공연에서 상쇠의 부포놀음, 장고의 춤사위 등 연주자들의 빼어난 개인기량을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북을 기본 편성으로 하고 전통 타악기의 음색과 음량을 확장하여 새롭게 편성한 '율명'이 연주된다.

In the 714th Saturday Performance, dynamic sound of drumming will be presented by Tarang, a performance group of young musicians who are dedicating themselves to pursuing the new phase of percussion music. Firstly, 'Ensemble of Big Drums' would make the audience to feel the dynamic and strong energy of the music with the variation of upbeat. Following is 'Rhythm Mori', an arrangement of Hwimori rhythm to show the enthusiastic rhythm and dynamic motion. After 'Rhythm Mori', Samulnori, Cheongomu and Pangut which can be said as the highlight of Samulnori will be performed.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enjoy the excellent individual plays at Pangut stage, including Bupo play of Sangsoe and beautiful motions of Janggo player. Lastly, 'Yulmyeong' which indicates the potential of rhythmical variation of percussions in contemporary sense will be lastly staged.

공연순서 PROGRAM

1 **대고합주 (히야신스)** Ensemble of Big Drums (Hyacinth)
2 **리듬 모리** Rhythm Mori
3 **사물놀이** Samulnori (Percussion Quartet)
4 **천고무** Cheongomu
5 **판굿** Pangut
6 **율명** Yulmyeong

대 표 김현수 | 전통 타악 그룹 타랑 대표
출 연 최주연, 설나라, 김솔잎, 강일순, 피재오, 김남규, 임다경, 오세원, 유요한, 조규환

2011. 7.23. sat (토)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23 July 2011(Sat), Museum Auditorium

박건희무용단의 춤, 꽃 한 송이

A Piece of Flower, Dance by Park Kun Hee Dance Group

2011. 7.30. sat (토) 3:00 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30 July 2011(Sat),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박건희 무용단의 이번 공연은 전통무의 원형적 심상을 기반으로 한국 무용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며, 보편성을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의 구성으로 대중과 호흡하기 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첫 무대에서는 한 손에 부채를 들어 여성스럽고 단아한 춤사위가 매력적인 부채산조를 선보인다. 이어서 사랑가, 살풀이춤, 남성춤의 백미인 한량무와 특유의 드라마틱한 동작이 특징인 호적시나위, 무당춤, 소고춤이 연달아 무대에 오른다. 마지막으로는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하여 왕비 또는 왕이 직접 춤을 추었다는 내용을 담은 태평무가 올려진다.
이번 "박건희무용단의 춤" 공연은 젊은 세대나 기성세대 모두에게 우리의 전통무용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The performance by Park Kun Hee Dance Group will present an audience-friendly stage, made of various kinds of repertoires rooted in the originality of Korean traditional dance. The first performance is Buchae Sanjo, a feminine and elegant dance holding a folding fan in one hand. Sarangga, Salpuri Dance, the representative masculine dance Hallyangmu, dramatic Hojeok Sinawi, Shaman Dance and Sogo Dance are the ones that will be following. For the last performance, Taepyeongmu which is a dance by King or Queen, praying the prosperity of the royal family as well as the reign of peace will be played.
This performance would be a precious opportunity for all of the audience coming across the various sides of Korean traditional dance.

공연순서 PROGRAM

1 **부채산조** Buchae Sanjo
2 **사랑가** Sarangga
3 **살풀이춤** Salpuri Dance
4 **한량무** Hallyangmu
5 **호적시나위** Hojeok Sinawi
6 **무당춤** Shaman Dance
7 **소고춤** Sogo Dance
8 **태평무** Taepyeongmu

총연출 박건희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수
안 무 허지연
출 연 허지연, 김순경, 전솔아, 신은영, 문성준, 채윤신, 이하나, 이원임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버 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주 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유료)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110-820)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 화 02-3704-3110 **홈페이지** http://www.nfm.go.kr

이용안내

개관 및 관람시간

3-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11-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5-8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국립민속박물관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